TL 1532

Mr. Kim is the director of the Asia, Africa, & Latin America Institute in Seoul and himself a former politicca l prisoner.

A TERRA DA PAZ "TIMOR-LESTE"

autor: Kim Myung-Shik

Eu insular de Che-ju, sabendo das lagrimas
dos nossos antepassados que sofreram sob os cascos
da Mongólia, as agressões dos Estados Unidos
e do Império Japonês, e o ressentimento dos nossos
irmãos ao domínio e genocídio dos seus consanguíneos.

Ó Timor-Leste, terra de paz !

Sabendo eu das lagrimas dos antepassados timorenses
que sofreram com o domínio português durante 450 anos
e a história da actualidade em que morreram os irmaos
leste-timorenses sob as baionetas do dominio indonésio.

A liberdade e a independência de Timor-Leste
brotará dos corpos quentes dos que amam
e dos corpos gelados dos que amaram e morreram
pela causa da independência timorense.

A liberdade e a paz de Timor-Leste
Nascerá do amor ardente do povo leste-timorense
que derreterá as baionetas opressores
e os seguidores do domínio indonésio.

Ó Timor-Leste, terra de paz !

평화의 땅 동 티모르

金 芳 植 (詩人, 1944年)

나는 제주도 사람이고 몽고의 밀발급
아래서 신음하던 일본 제국의 미국의
침략아래서 나의 조상들이 흘린 피눈물을
알게 되고 동족의 지배와 학살아래서 울부짖던
내 형제자매들의 원한을 알게 되면서

아, 평화의 땅 동 티모르여!

나는 4백 50년 동안의 포르투칼의
식민지배 아래서 시음하던 동 티모르의
조상들의 피눈물을 알게 되고 인도네시아
지배의 총칼 아래서 동 티모르의 형제자매들이
죽어간 역사와 현실을 알게 되면서

동 티코르의 자유와 독립은 마음씨 고은
동 티모르 인민의 사랑 우주를 사랑하고
죽어간 형제의 사늘한 몸을 자기 몸으로
사랑하는 그대들 더운 몸에서 꽃피어나리니

인도네시아 지배의 힘센자들의 가진 자들의
총칼 녹일 수 있는 동 티모르 인민의 뜨거운
사랑에서 동 티모르의 해방과 평화는 꽃피어나리니

아, 평화의 땅 동 티모르여!

산과 바다, 땅과 하늘, 들과 평야를 콩과 배추,
무우와 물고기, 해초와 물방울을 동 티모르의
인민을 아, 나의 몸으로 사랑할 때 동 티모르
인민의 사랑은 지배의 총과 칼을 제국의 음모를
인도네시아아의 지배전략을 산산히 부셔내리니

동 티모르의 독립과 해방 풍요와 평화는
그대들과 함께 하는 독립된 몸 해방된 몸
풍요와 평화한 몸에서 꽃피어나리니
동 티모르의 독립은 자유한 세계 시민의
독립된 세계시민의 아, 해방된 세계시민의
평화한 세계시민의 아, 몸, 몸의 영토에서 피어나리니.....

(1993/12/1)

□ 등티모르 득립투사 알카티리 방한

"인도네시아 강점 비난에 한국민들 동참해 줬으면"

인도네시아 군도 남동쪽 끝, 인구 약 70만명의 작은 섬. 17세기 중반부터 1975년까지 4백50여년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있다 독립된 지 9일만에 다시 인도네시아에 강점된 땅. 이것이 동티모르의 간략한 역사다. 이 섬의 독립을 위해 몸바쳐온 마리 알카티리(44·사진)가 한국을 찾았다.

알카티리의 공식 직함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본부를 둔 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FRETILIN)의 대외담당관. 그는 9일간의 짧은 독립기간중에는 이 나라의 외무장관이었다.

전국연합의 초청으로 지난 28일 서울에 온 그는 "동티모르의 독립과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왔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그는 방문기간에 민주당의 조순승 국제협력위원장, 강수림 인권위원장 등을 만나 의회 차원에서의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동티모르 문제를 부각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인권단체들이 인도네시아의 침공 기념일인 오는 7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강점한 이래 이 지역을 무력으로 통치해 왔으며 91년 11월에는 독립요구 시위대에 대한 군의 발포로 50명 이상이 숨지고 91명 이상이 다쳤으며 90여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알카티리는 지난 28일 장위동 성당 미사에서 함세웅 신부가 "일제 당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며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선열들을 연상시킨다"며 격려와 함께 모금까지 해준 데 대해 크게 고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무부 등 정부당국자들은 한결같이 면답을 거절해 약간 실망스럽다는 눈치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고 유엔 결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국제적 압력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은 76년부터 84년까지 해마다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계속 무시돼 왔다. 인도네시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묵인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의해 반정부 선동자로 지목돼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알카티리는 1일 현재 활동근거지로 삼고 있는 모잠비크로 떠났다.

윤국한 기자

한겨레신문 1993년 12월 2일 (목요일)

「나의 조국…」 강연

마리 알카티리 東티모르 前 외무장관은 29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나의 조국, 동티모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동쪽끝에 위치한 섬이다.

A montanha e o mar, o terra e o céu, a planície
e o campo, o feijão e o repolho, a alga e a gota da água
e o povo leste-timorense, o meu amor por vós
com toda a alma, o amor do povo leste-timorense
destruirá o domínio das baionetas, a conspiração do
império e a estratégia opressora indonésia.

A independencia, a liberdade e a paz
de Timor-Leste brotará dos corpos independentes,
libertos, prósperos e pacíficos e permanecerá em vós.
A independência de Timor-Leste brotara do
cidadão mundial livre, do cidadão mundial independente
Ó cidadao do mundo livre e pacífico,
Ó corpo ! Ó vida !